



5년 내 전국민 동일보장시대 도래

왕양비 연구원

■ 8월 21일 중국 사회보장부가 5년 내 사회보장카드 8억 장 발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, 동 카드의 발행으로 지역 간 및 농민과 도시주민 간의 기초사회보장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이다.

● 중국의 기초사회보장인 ‘오험일금*’은 최근까지 지역별로 보험료 납부 및 지급 기준이 서로 달라 가입자의 지역 간 이동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.

* 중국의 ‘오험일금’은 의료보험, 양로보험(국민연금), 실업보험, 산재보험, 출산보험, 주택적립금을 포함하는 기초사회보장제도임.

● 금번 사회보장카드 발급계획이 이행되면 전국 60%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지역 간 이동 시에도 기존과 동일한 ‘오험일금’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며, 이에 사회보장부가 91개 항목의 세부 보장기준을 확정할 계획임.

● 종전까지 각 지역의 독자적인 사회보장카드 설계에 따라 지역별로 카드번호 자리수도 달랐지만, 이번에 발급될 카드는 주민 신분증 번호를 카드번호로 활용함과 동시에 현금카드 기능도 부가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짐.

■ 공무원을 비롯한 일부 정부기관 직원의 경우 보장체계가 달라 금번 사회보장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나, 사회보장체계의 ‘전국민 표준화’는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개혁 목표임.

● 현재 중국의 경우 약 1,530만 명의 정부기관 직원이 있는데, 이 중 약 500만 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보도됨.

● 현재 공무원과 절반 정도의 정부기관 직원(공무원 제외)은 사회보장시스템이 아닌 국가보장시스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, 이러한 공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장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는 국가재정이 부담하고 있음.

● 중국의 사회보장법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기관 직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장부가 아닌 국무원이 직접 제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기관 직원에 대한 복지시스템에 특수성을 부여함.

- 이에 국가 재정지원의 혜택 상실을 원하지 않는 정부기관들은 일반 사회보장체계에 포함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다 별도의 재정체계로 인해 금번 사회보장카드 발급 대상에 공직자들이 포함되지 않음.
- 보험전문가들은 사회보장체계의 '전국민 표준화' 실현을 위해 공직자, 농민, 도시주민 등이 모두 동일한 사회보장체계에 포함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다는 의견을 제기함.

(인민망 8/22, 난방신문망 8/23 등)